

慶州警察署內的 石造物들

鄭 永 鎬

경주경찰서 正門을 들어서면 左右로 담장을 따라 많은 石造遺物이 配列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石造物들은 慶州市內와 月城郡 各地域에 散在해 있던 것을 一九七二年度 一—三月에 걸쳐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라 한다. 당시 경주경찰서장으로서는 移安作業을 추진하고 또한 지휘하였던 嚴東烈氏의 말에 의하면 최근 市內에서의 高速公路進入路와 産業道路의 新設로 파괴된 寺址에서 出土된 石物과 흔히는 道路邊이나 耕作地, 雜草 우거진 속에서 수습한 遺物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개인집 마당에 방치되었던 것을 蒐集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 石造物을 移搬 整理할 때 당시 文化財監視를 맡고 있던 崔南柱氏가 同行하였다고 한다.

筆者는 現地에서 配列된 이들 石造物을 過眼할 때마다 몇 점의 石物을 注目하였는바 이들은 비록 個體의 完形品이 아니고 한 部材에 지나지 않으나 모두 그 原位置와 수습경로가 확실하므로 여기에 귀중한 資料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편의상 北쪽으로부터의 순서로 적는다)

一、方形柱礎石……경주시 배반동 산업우회도로 주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수집한 것이라 한다. 一〇cm×九〇cm, 높이 四〇cm의 화강암 자연석의 上面을 다듬고 一段의 方壇을 彫出한 柱礎石이다. 治石이 깨끗하나 磨損된 부분도 있으며, 三國期末의 礎石으로 추정된다.

方形柱座 下段은 六五cm×六五cm, 높이 三cm. 上段은 五〇cm×五〇cm, 높이 四cm.

二、方形柱礎石……경주시 배반동 산업우회도로 주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수집한 것이라 한다. 一七二cm×一〇七cm, 높이 四〇cm 크기의 화강암 자연석의 上面을 다듬고 一段의 方形의 臺를 彫出한 柱礎石이다. 方壇은 비교적 완전히 남아 있는데 규모가 크기 九〇cm×九〇cm, 높이 九cm로 큰 편이고 治石도 古風을 보이며 三國期の 礎石中 優作이라 하겠다.

三、石塔材……현재 넓이 一七六cm, 높이 七四cm, 우주폭 二四cm의 기단면석 二매를 지대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석탑재를 올려 놓았는데, 초층 옥신석만은 경주시 동부리 개인집에 있던 것을 옮긴 것이며 이 밖의 다른 석탑재는 모두 月城郡 見谷面 南沙里 三〇六번지 金鎭斗가 채전에 산재해 있던 폐탑재를 수습하였던 것이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는바 초층 옥신석은 넓이 七七cm,



圖 1. 北쪽 진열 石造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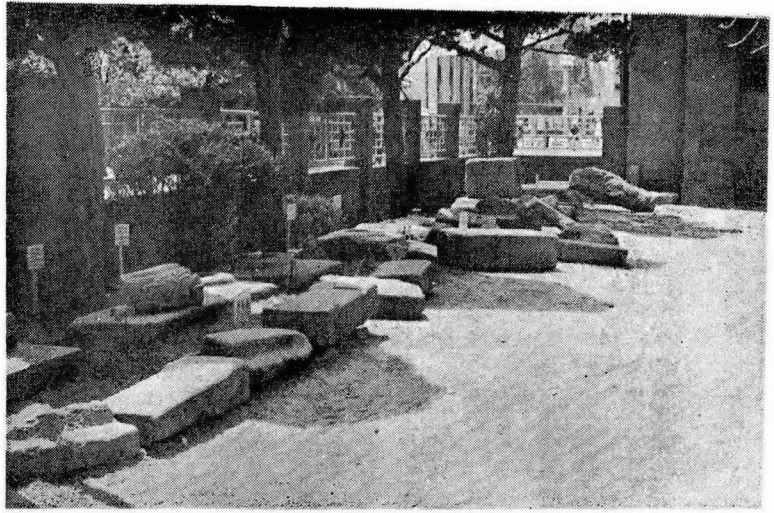


圖 2. 南쪽 진열 石造物들

하였다. 이 옥개석의 한번길이는 一四四 cm, 전각두께 七·五 cm, 옥신석 넓이는 七七 cm, 높이는 二四 cm, 우주폭 二二 cm. 이 옥개석, 옥신석 위에는 두개의 옥개석만이 겹쳐 쌓여 있는데 같은 형식으로 옥개받침이 五段式이고 옥신피임은 二段式이며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재로서 크기는 각각 한번길이가 一三五 cm, 一一三 cm 이다.

四、方形石函……경주시 배반동 산일우회도로 주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수습한 것이다 한다. 화장암을 一一〇 cm × 九五 cm, 높이 四〇 cm 크

높이 七三 cm, 우주폭 一五·五 cm 규모로서 통일신라시대작으로 추측된다. 이 위에 놓인 옥개석은 그 위의 옥신석과 한 돌로 조성되었는 바 옥개받침이 五段이고 옥신피임이 二段이며 양쪽 우주가 정연한 점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의 석탑부재임이 분명한데 이렇듯 옥개석과 그 위의 옥신이 같은 한돌로 되어 있는 것은 高麗時代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신라시대의 석탑에서 는 희귀한 遺例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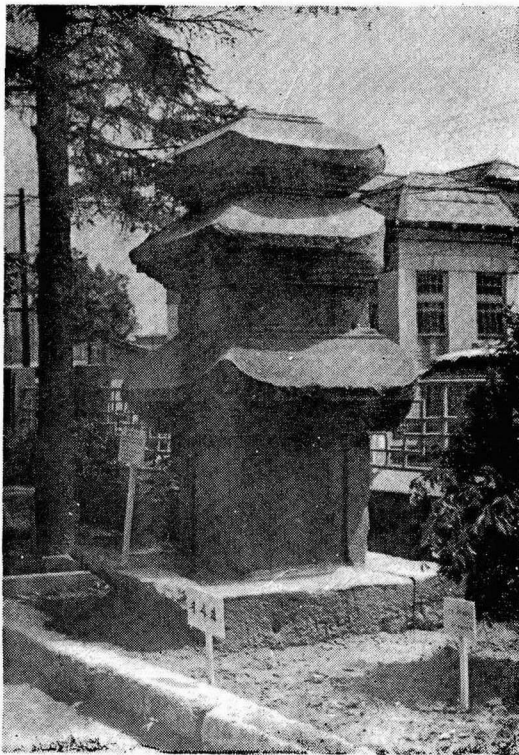


圖 3. 石塔材

기로 자연스럽게 다듬고 그上面을 깨끗이 다듬어 二段의 方壇을彫出하고 그 中央에 方孔을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上段의 方壇은 中心部의 方孔시설로 인하여 方孔의 周緣部가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뚜껑돌이 있었던 石函이 분명한 것이다. 이 石函이 어떠한 塔塔이나 模塼石塔 등의 石函으로 塔內에 奉安되었던 것이거나(芬皇寺石塔에서와 같이) 혹은 木塔의 心礎石으로 奉安되었었을 것인데 出土現場과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무엇이라 단정하기가 어렵다. 方孔의 크기는 三四·五 cm × 三四·五 cm, 깊이는 三四·三 cm. 方壇下段은 八〇 cm × 八〇 cm 높이 三·五 cm, 上段 五四 cm × 五四 cm, 높이는 二·五 cm. 年代는 통일신라시대 초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五、石塔材……月城郡 外東面 入室 二里 七七四번지 崔道永氏 소유는 에 묻혀 있던 것을 수습한 것이다 한다. 밑에는 넓이 一七二 cm, 높이는 七三 cm, 우주폭 二六 cm 크기의 기단면석 三매를 놓고 지대석을 삼았다.

은 낮은 二段이다. 그 위의 옥신은 아주 낮아 높이가 一五 cm 이며 넓이 八二 cm, 우주폭 一一·五 cm 이다. 그 위의 옥개석 一변의 길이는 一三八 cm 로 옥개받침은 역시 큼직한 二段이나 옥신포임은 낮은 二段이며 그 위의 一변길이 七八 cm 의 옥개석 하나도 이와 똑같은 형식인데 이렇게 하고 보면 이들 옥개석은 모두 같은 양식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대는 옥신석 四면에 배치된 여래입상이나 옥신포임단의 양식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시대에 서로 중기 이후로 떨어지는 때의 조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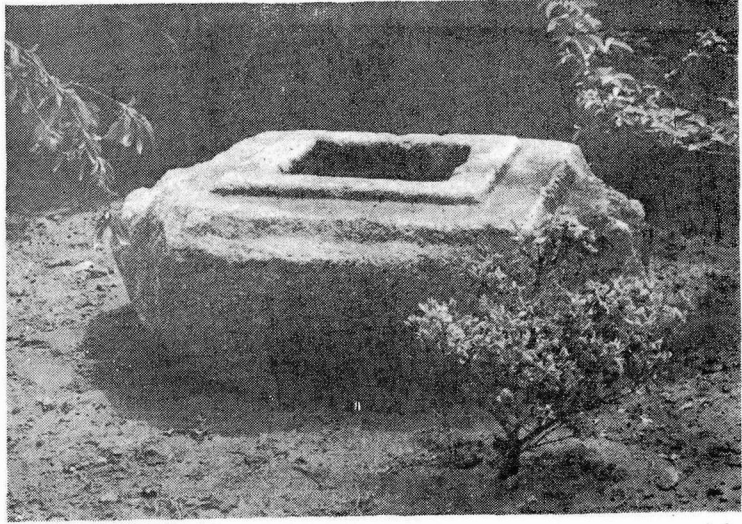


圖 4. 方 形 石 函

모두 화강암으로 조성되었으며 특히 초층옥신석에는 四면에 蓮華座와 圓形頭光을 구비한 如來立像을 一軀式陽刻하고 있어 注目되는 데 신석의 규모는 넓이 九五 cm, 높이 八五 cm, 우주폭 一八 cm 이다. 옥개석은 一변의 길이 一七四 cm 로 옥개받침은 큼직한 三段이나 옥신포임



圖 5. 石 塔 材

로 추정된다.
 六、石塔材……月城郡 外東面 入室二里 논속에 묻혀 있던 것을 수습한 것이라 한다. 넓이 九二 cm, 높이 七〇 cm, 우주폭 一八 cm 규모의 옥신포임이 크기로 보아 초층옥신으로 추측된다. 현재는 上端쪽이 파손되고 또 두쪽이 나 있지만 이것은 수습하기 이전에 洞民들이 石材로 사용하려고 쪽을 낸 것이지 본래는 一石으로 造成된 것이다. 各面에는 兩隅柱가 정연하고 如來立像을 一軀式 配置하였는데 上·下邊에 가득차도록 큼직하게 陽刻하였으며 蓮華座와 圓形頭光을 구비하고 있다. 화강암을 다듬은 솜씨와 如來立像의 조각 수법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통일신라 성대인 八세기 중엽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七、圓座柱礎石……경주시 북부동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한다. 화강암을 一一〇 cm × 八七 cm, 높이 三〇 cm 크기의 方形으로 다듬고 그 上面에 圓座를 模刻하였다. 圓座는 三重으로 이루어졌는데 下段은 一三 cm 의 높



圖 6. 石塔材

기의 方形으로 다듬어 그 위에 다시 높이 六 cm의 方段을 마련하고 그上面에 一七 cm 높이의 三重圓座를 模刻하였다. 그리고 양쪽에 心房石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礎石의 형태와 수집장소 등으로 보아 앞의 圓座柱礎石(七)과 같은 건물에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九、方形柱礎石 二石……경주시 배반동 산업우회도로 주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二石 함께 수집한 것이다. 전한다. 화장암을 대충 다듬고 그 위에 方形一段을 模刻하였는데 年代는 古新羅로 추측된다. 실측치는

이로 높직하나 그 위의 二段은 얇은 편이다. 그리고 心房石에 연결되는 부분이 직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건물 네귀 통이중의 한쪽 柱礎石인 것으로 생각되는바 圓座의 樣式이나 治石手法으로 보아 統一新羅時代의 遺品으로 추정된다.

八、圓座柱礎石……경주시 북부동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한다. 화장암을 九 cm × 九五 cm, 높이 二〇 cm 크

높이 一三 cm × 九七 cm, 높이 三二 cm의 크기, 方段은 八一 cm × 八一 cm, 높이 六 cm. 其一……一〇二 cm × 九八 cm, 높이 三四 cm의 크기, 方段은 八一 cm × 八〇 cm, 높이 八 cm. 수집장소와 方段의 규격, 형태 등이 같은 점으로 보아 같은 건물의 柱礎石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一〇、石塔材와 方形柱礎石……화강암을 一三九 cm × 九六 cm, 높이 三〇 cm 크기로 다듬고 上面에 八七 cm × 八七 cm, 높이 六·五 cm 규모의 方段을 模刻한 柱礎石을 놓고 그 위에 石塔材를 놓았는데 柱礎는 三國期新羅의 作風을 보이고 있다. 石塔材는 月城郡 見谷面 소현리 서편의 山麓에서 수집한 것이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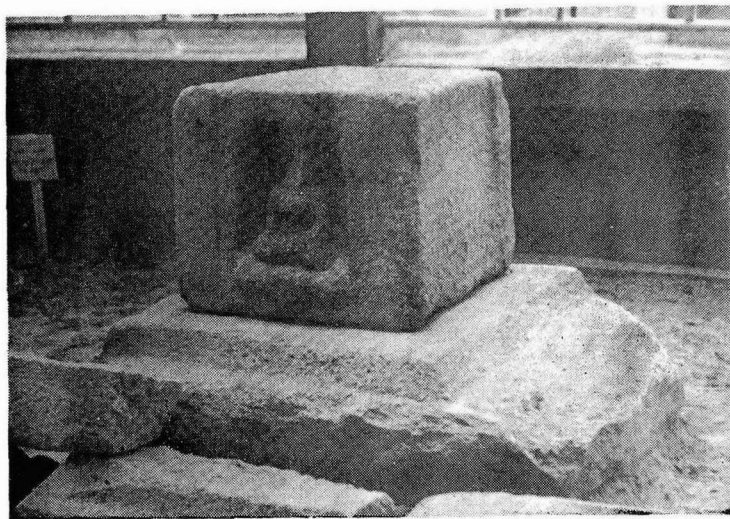


圖 7. 石塔材

室周緣에는 花紋을 彫飾하였던 흔적이 完연하다. 佛像은 全面에 磨損이 심하여 細部の 조각을 잘 알 수 없으나 各部形態와 윤곽은 뚜렷한 편이다. 蓮華座위에 結跏趺하였는데 蓮華座는 레리프가 강하여 塔身石面보다 밖으로 나왔고 坐像만이 거의 같은 면으로 彫刻되었다. 頭像과 膝部に 破損이 심하며 胸部와 兩腕은 堂堂하고도 부드러운 統一新羅時代의 作風을 보이고 있다. 坐像의 크기는 坐像 高二六cm, 肩幅 一五cm, 胸幅 九·五cm, 膝幅 一九cm, 膝高 五cm이다. 이 石塔材는 그 규모와 佛龕을 시설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初層屋身石으로 생각된다.

一一、圓座柱礎石……경주시 황남동 九三번지 權章瑞氏로부터 수집한 것이라 한다. 화장암을 五四cm×五五cm의 方形, 높이 二四cm의 크기로 다듬고 그 上面에 높이 三cm, 徑 四三cm의 圓座를 模刻하였으며 다시 徑 三三cm의 얇은 柱座를 마련하여 統一新羅時代의 전형적인 圓座柱礎石 형태를 보이고 있다.

一二、圓座圓孔柱礎石……경주시 서부동에서 수집한 것이라고만 전한다. 화장암을 一一〇cm×九〇cm, 높이 四〇cm의 거의 長方形으로 다듬고 그 上面에 높이 九·五cm 圓座를 二段模刻하였는데 下段은 徑 六六cm이고 上段은 徑 五六cm이다. 그리고 그 中央에 徑 二四cm의 圓孔이 있다. 이렇듯 圓座와 圓孔을 시설한 柱礎石은 統一新羅時代의 寺址에서 볼 수 있는 바 이 遺物도 이 時代의 건물 초석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一三、圓座圓孔柱礎石……경주시 북부동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한다. 화장암을 七〇cm×六八cm, 높이 二五cm의 크기로 거의 方形으로 다듬고 그 上面에 徑 四九cm의 圓座를 模刻하였는데 여기에는 양쪽에 心房石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圓孔은 圓座中央에 있고 徑 二七cm인데 이 礎石도 統一新羅時代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一四、石井圓形蓋石(組合式)……경주시 황남동 三五二번지 朱在龍氏

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고 한다. 이와 同形の 또하나의 蓋石이 結構되어 하나의 石井蓋를 이루는 것이다. 화장암을 一二七cm×六二cm, 두께 一六cm로 다듬고 그 上面에 圓座形으로 높이 七cm, 폭 一八cm의 周緣幣를 模刻하였으며 中心部の 圓孔은 徑 三六cm이다. 그리하여 이 한쪽 뚜껑을 倍로 잡아 復原하면 一二七cm×一二四cm로 거의 方形의 뚜껑임을 알 수 있다.

一五、石井圓形蓋石……경주시 성전동 六五번지 金龍宅氏가 기증한 것이라 한다. 二枚石을 結構하여 하나의 蓋石을 이루는 組合式과는 달리 一枚石으로 이루어진 井石이다. 화장암을 높이 二八cm, 一〇〇cm×一〇〇cm의 正方形으로 다듬고 中央에 徑 三一cm의 圓孔을 뚫었으며 그 周緣에 높이 六cm, 넓이 一四·五cm의 圓帶를 둘러 周緣帶를 삼고 있다. 治石手法이나 端雅한 형태로 보아 統一新羅時代의 作品으로 보인다.

一六、蓮華臺石……경주시 황남동 九三번지 權章瑞氏가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完形은 아니나 蓮華紋의 형태와 괴임段의 模刻樣式으로 보아 仰蓮石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상태로는 길이 六七cm, 두께 二三cm의 크기이며 上面의 圓弧와 角形의 괴임이 마련되었고 仰蓮은 單葉으로 三重瓣을 이루고 있다.

蓮瓣이 豊麗하고 三重으로 華奢하여 統一新羅時代의 石造物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이 곳에는 石塔의 面石이나 長大石 등 數點의 石物이 수집되어 있는 바 앞으로 이 모든 遺物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 石造物調査에 있어 모든 주선과 많은 助言을 하여준 現地의 禹炳益, 咸鍾赫 兩氏의 厚意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